

# 조선시대 고문서 시맨틱 웹 DB 설계 기초 연구<sup>1</sup>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 전공 박사과정  
류인태

---

## 목 차

---

1. 고문서 연구와 시맨틱 웹
  2. 부안 김씨 문중 고문서와 DB 모델 기초 연구
    - 2-1. 연구 대상 : 부안 김씨 문중 고문서 12종 26편
    - 2-2. 12종 26편의 고문서 유형 정리 및 기초 데이터 추출
    - 2-3. 기초 온톨로지 설계 맥락 및 클래스 설정
  3. 고문서에 담긴 이야기와 시각화
- 

## 1. 고문서 연구와 시맨틱 웹

고문서는 문자적 지칭 그대로 ‘오래된 문서’ 즉, 전근대기에 작성된 문서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문서’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고문서’에 대한 형식적 차원의 정의는 다소 복잡한 논의를 낳을 수 있겠지만,<sup>2</sup> ‘고문서’가 옛사람들의 일상을 그 내용으로 품고 있음은 이견이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고문서’를 형식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역적 차원의 논의보다도 여러 유형의 고문서에 담긴 내용을 귀납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그것들을 포괄하여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DB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고문서를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고문서와 고문서의 연관 관계 더 나아가 고문서의 내용과 인문학에서 다루어지는 보편적 지식 노드가 어떻게 연결

---

1 본고는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이루어진 ‘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에서 고문서학은 근대 이후 역사학의 보조 학문으로 성립되었다. 구로이타 가츠미는 문서를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授受되는 文面’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고, 한국에서 그대로 수용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의 고문서학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고문서 연구의 입문서가 간행이 되고 고문서학회가 성립되면서 활발하게 역사학의 일부분으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문서의 개념 규정은 발급자와 수신자를 중심으로 고문서를 분류·정리하게 되고, 이러한 고문서 정리 방식은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주의라고 하는 최근의 아카이브즈학의 자료 정리 방식에 의하여 비판되고 있다. 아카이브즈는 낱장의 문서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낱장 문서의 연관 속에서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전근대 아카이브즈의 정리에 있어서는 문서의 연관 관계(context)를 중시하는 정리 방식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고문서’의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김현영, 「고문서 개념의 수용과 전근대 아카이브즈 자료의 정리」 『사학연구』제95호, 한국사학회, 2009. p.108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수용될 여지 또한 있다. 예컨대 ‘시맨틱 웹’ 개념이 곧 그러한 디지털 인문학으로서 본 연구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핵심 키워드에 해당한다.

고문서 연구에 있어서 ‘시맨틱 웹’ 개념을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는,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질 인문학 연구 전반에 있어서 정보와 정보 또는 지식과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한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sup>3</sup> 가령 전통적 인문학 연구의 경우 연구자 개인의 지적 능력에 의존한 ‘정보의 발견’ 또는 ‘지식의 발굴’이 매우 큰 가치를 갖는 요소로 여겨져 왔다.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텍스트를 새롭게 발굴하여 그 가치를 분석한다거나, 기존에 논의되어 온 여러 학문적 담론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시대사적으로 가치 있는 담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요소에 해당한다. 디지털 인문학은 그러한 전통적 인문학 연구의 양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나 지식이 대중 또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더욱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게끔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지식의 ‘개인적 점유’보다는 ‘사회적 공유’를 보다 더 강하게 지향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나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 가운데 유의미한 지식이 새롭게 창출되고 그로부터 사회적 차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시맨틱 웹’ 개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문서 연구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고문서 연구를 통해 창출될 다양한 정보 간의 연결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컴퓨터로 하여금 인식하게 함으로써 향후 여타 주제의 인문학 연구를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고문서 연구의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존에 이루어져 온 역사학, 철학, 문학, 사회학 연구와 같은 전공 영역의 장벽을 허물고, 오히려 주제나 성격이 다른 연구 간의 접합점을 ‘고문서’를 매개로 하여 발견하게 만들고 그로부터 창출된 정보나 지식을 연계시킬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아날로그 환경의 인문학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유의미한 지점들을 우리 앞에 이끌어 드러내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새로운 형식의 연구라 할 수 있다.

## 2. 부안 김씨 문중 고문서와 DB 모델 기초 연구

### 2-1. 연구 대상 : 부안 김씨 문중 고문서 12종 26편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고문서 가운데서도 조선시대 문중 고문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중 고문서는 오랜 기간 동안 단일 가문에서 소장해 온 여러 유형의 고문서를 포괄

---

3 시맨틱 웹 개념과 인문학 연구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시맨틱 웹이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미를 부가한 데이터의 웹이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정보기술의 영역에서 추구할 과제이지만, 그 규칙을 응용하고 확장하여 미래의 사이버 공간에서 인문지식이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디지털 인문학자들의 과제이다.” -김현 외 2인,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p.147

하는 맥락에서 그 의미가 정의된다. 세대가 바뀔에 따라 해당 가문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바뀌고, 인물이 바뀔에 따라 가문의 변형과 쇠락 또한 갈마들며, 그에 따라 변화해가는 인간 삶의 다채로운 흔적들이 문중 고문서에 풍부하게 담겨 있다. 특정 가문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다량의 고문서를 소장해 온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과거 선조들의 삶이 현재의 우리 삶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를 포함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살아오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은 이들은 또한 누구이며 그들과 ‘나를 포함한 우리’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연을 맺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통시적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돌아보게끔 만든다. ‘문중’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고문서’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서 여러 인적 매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그 인문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중 고문서의 특수한 맥락에 초점을 두고, 문중 구성원의 가계 정보에 기초하여 여러 유형의 고문서를 연계하는 방안에 주목함으로써, 아날로그 환경에서 이루어져 온 개별 고문서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통합적 고문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밀도 있게 담아내고자, 여러 가문의 고문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단일 가문의 고문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 대상 자료로 삼은 것은, 2016년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 약 740여 건의 부안 김씨 가문의 고문서 가운데서도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대표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판단되는 12종 26편의 고문서이다.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자료들을 검토하였을 때 부안 김씨 가문의 고문서는 ‘분재기’와 ‘현금 차용증’, ‘토지매매명문’, ‘소지’와 ‘입안’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서가 지닌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중 고문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sup>4</sup> 본 연구가 분석 대상 자료로 삼은 12종 26편의 고문서는, 조선시대 중·후기를 살다 간 ‘김홍원-김명열-김번·김문-김수종’ 부안 김씨 4대의 다양한 삶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자료라 판단된다. 해당 자료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고문서 유형	대상자료	비고
01	고신	1598년 김홍원의 고신	
02		1599년 김홍원의 고신	
03		1606년 김홍원의 고신	
04		1660년 김명열의 고신	
05		1664년 김명열의 고신	

4 부안 김씨 문중 고문서가 지닌 학문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우반동 김씨란 우반동에 세거(世居)하는 부안 김씨라는 뜻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우반동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우반동 김씨 종가(宗家)에는 현재 수많은 고문서(古文書)가 소장되어 있는데 1970년대 초에 정구복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된 후 그 학술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료집으로 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문화재적 가치 또한 크게 인정받아 1987년에 보물 900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1. p.3

06		1666년 김명열의 고신	
07		1662년 김번의 고신	
08		1666년 김문의 고신	
09	홍패·백패	1651년 김명열의 홍패	
10		1710년 김수종의 백패	
11	유지	1600년 김홍원에게 내린 국왕의 명령서	
12	소지류	1664년 김명열의 소지	
13		1669년 김명열의 소지	
14	호적	1675년 김번 가족의 준호구	
15	관	1670년 호조 해유이관	
16	입안	1675년 예조 계후입안	
17	분재기	1669년 김명열 별급문서	
18		1669년 김명열 형제의 분재기	
19		1672년 김명열 별급문서	
20		1678년 김번 형제 화회문기	
21		1688년 김번 분재문기	
22	명문	1636년 김홍원 전답 매입 명문	
23		1629년 심명세의 김홍원 노비 양도 명문	
24	시권	1710년 김수종의 진사시 시권	
25	시문	1668년 김명열이 지은 시	
26	물목단자	김수종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미상 물목단자	

【표 1】 부안 김씨 문중 고문서 대상 자료 12종 26편

## 2-2. 12종 26편의 고문서 유형 정리 및 기초 데이터 추출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된 26편의 고문서는 그 유형이 모두 다르며, 그에 따라 개별 고문서로부터 추출되어야 할 정보의 속성 또한 상이하다. 엄밀하게 접근할 경우, 각각의 고문서 유형은 모두 다른 미디어(Media)로서 하나하나가 모두 그 정보의 속성을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데 있어서 탄탄한 수준의 기초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관직임명장으로서의 ‘고신(告身)’과 관료자격 합격증서로서의 ‘홍패(紅牌)·백패(白牌)’는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중세기 관료시스템의 특징을 보여주는 핵심적 미디어이다. 국왕의 단독적 명령서로서의 ‘유지(有旨)’는 중세기 통치자와 관료 사이에 오갈 수 있는 특수한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보여주는 미디어이다. ‘소지(所志)’와 ‘입안(立案)’은 각기 민중이 관청에 올리는 청원 그리고 민중의 청원에 따라 관청에서 발급하던 인증 성격의 고문서로서, 중세기 개인의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요소와 그것을 바라보던 사회적 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이다. ‘분재기(分財記)’와 ‘명문(明文)’은 노비나 토지와 같은 재산상의 요소를 증여하고 교환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중세기 개인의 소유관념과 공동체 내에 형성되어 있던 증여의식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교환 관념을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미디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다종(多種)의 미디어로서 고문서가 지닌 특징이 각각 다르기에

고문서 개별 유형이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일반적 형식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여러 유형의 고문서 가운데서도 ‘분재기’ 유형의 고문서는 이미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 그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다.<sup>5</sup>

본 연구는 여러 유형의 고문서에 담긴 다양한 내용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담아내어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초적 문제의식을 필두로, 그것을 재현(representation)할 수 있는 기초적 데이터 모델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각각의 고문서 유형에 집중하여 그것이 미디어로서 지닌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개별 고문서 유형이 내포한 일반적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함으로써 그로부터 추출한 유의미한 정보의 맥락이 무엇인지 개괄해보는 방향으로 각 자료의 데이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면의 한계를 고려할 경우 12종의 고문서 유형을 모두 다룰 수 없어, 그 가운데 여타 고문서와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른 ‘명문’과 ‘물목단자’ 그리고 ‘시권’과 ‘시문’을 제외한 8종의 고문서 유형에 한정하여 그 내용과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 2-2-1. 고신(告身): 관직임명장

고신(告身)은 사첩(謝帖)·직첩(職牒·職帖)·관교(官敎)·교첩(敎牒) 등으로도 지칭된다. 관직임명장이기에 해당 가문의 명예와 관련이 깊어 문중에서 소장해온 여러 고문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부안 김씨 문중 또한 다량의 고신을 소장해왔으며, 본 연구는 그 가운데서 8편의 자료를 발췌하여 데이터로 정리하였다. 관직임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임명연도월일, 임명자, 피임명자, 임명품계, 임명기관, 임명직책 그리고 대가(代加)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대가(代加)’는, 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당하관(堂下官) 즉 정3품 통훈대부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散階)를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더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8편의 대상 자료 가운데서 1662년 김번의 고신과 1666년 김문의 고신은 각각 1660년 김명열의 고신과 1664년 김명열의 고신과 대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가’에 대한 관계어 정의를 통해 문서와 문서 간의 관계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아래는 8편의 고신이 지닌 데이터를 정리한 표이다.

고문서	임명 연호	임명 연도	임명 월	임명 일	임명자	피 임명자	임명 품계	임명 기관	임명 직책	대가 (代加)
1598_김홍원_고신	만력_26	1598	03	22	선조	김홍원	통정대부 (通政大夫)	.	.	.
1599_김홍원_고신	만력_27	1599	03	10	선조	김홍원	통정대부 (通政大夫)	금산군 (鎭山郡)	군수 (郡守)	.

5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분재기(分財記)’에 담긴 여러 층위의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연구는 이미 수행되었다. 그에 대한 내용은, ‘김하영, 「문중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06_김홍원_고신	만력_34	1606	08	07	선조	김홍원	통정대부 (通政大夫)	원주목 (原州牧)	목사(牧使)	•
1660_김명열_고신	순치_17	1660	08	18	현종	김명열	통훈대부 (通訓大夫)	강진현 (康津縣)	현감(縣監)	授
1664_김명열_고신	강희_03	1664	01	29	현종	김명열	통훈대부 (通訓大夫)	황주목 (黃州牧)	판관(判官)	授
1666_김명열_고신	강희_05	1666	09	11	현종	김명열	통훈대부 (通訓大夫)	평산도호부 (平山都護府)	부사(府使)	•
1662_김변_고신	강희_01	1662	01	•	현종	김변	장사랑 (將仕郎)	•	•	受
1666_김문_고신	강희_05	1666	07	•	현종	김문	종사랑 (從仕郎)	•	•	受

【표 2】 고신(告身) 기초 데이터

### 2-2-2. 홍패(紅牌)와 백패(白牌) : 문·무과 합격증과 생원·진사시 합격증

홍패(紅牌)와 백패(白牌)는 각각 대과(大科)와 소과(小科)의 합격증이다. 과거에 합격한 것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시험을 몇 순위로 통과하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과거 합격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발급연도월일, 발급유형, 시험유형, 등급, 석차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는 대상 자료로 선정된 2편의 홍패·백패가 지닌 데이터를 정리한 표이다.

고문서	발급연호	발급연도	발급월	발급일	발급유형	시험유형	등급	석차
1651_김명열_홍패	순치_08	1651	12	17	홍패	문과	병과	13
1710_김수중_백패	강희_49	1710	05	22	백패	진사	2등	25

【표 3】 홍패(紅牌)와 백패(白牌) 기초 데이터

### 2-2-3. 유지(有旨) : 왕이 관직자에게 내리는 명령당부문서

유지(有旨)는, 조선시대 왕이 명령을 내리고자 하던 이에게 승정원의 담당승지를 통해 전달한 왕명서(王命書)를 가리킨다. 왕이 직접 담당승지에게 명령하여, 그 내용을 쓰도록 하여 명령을 받는 이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던 중요한 서류이기에, 관찬 사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세한 역사적 사실들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대상 자료로 선정한 1편의 유지는 1600년 선조가 김홍원에게 발급한 명령서이다. 1599년부터 김홍원이 금산 군수로 재직하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이것이 어사의 계문(啓文)을 통해 선조에게 전달되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선조가 김홍원에게 직접 표리일습(表裏一襲: 옷의 겉감과 안감 한 벌)을 하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임금이 ‘표리일습’을 하사한 것은 포상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문종의 입장에서 명예의 상징으로 수용될 수 있기에 해당 유지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왕이 내린 명령당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발급

연도월일, 발급자, 발급기관, 발급목적, 발급이유, 발급물품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는 대상 자료로 선정된 유지가 지닌 데이터를 정리한 표이다.

고문서	발급연호	발급연도	발급월	발급일	발급자	발급기관	발급목적	발급이유	발급물품
1600_김홍원_유지	만력_28	1600	04	06	선조	승정원	포상	목민	표리일습

【표 4】 유지(有旨) 기초 데이터

#### 2-2-4. 소지(所志) :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진정서·소장

소지(所志)는, 민중이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 또는 진정서 성격의 문서를 가리킨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해관계가 뚜렷하여 관부의 결정과 도움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대부분 소지를 통해 청원 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관청에 제출된 소지의 경우, 관원이 해당 소지에 담긴 청원 또는 진정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 작성하는데, 이를 ‘데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데김이 적힌 소지는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 여겨졌기 때문에 각 문종에서 이해관계의 종식을 위한 목적으로 오랜 기간 보관해온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관청에 올리는 청원 및 진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청원연도월일, 청원자, 피청원자, 청원목적, 청원사유, 데김유무, 데김사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는 대상 자료로 선정된 2편의 소지가 지닌 데이터를 정리한 표이다.

고문서	청원 연호	청원 연도	청원월	청원일	청원자	피 청원자	청원 목적	청원 사유	데김 유무	데김 성격
1664_김명열_소지	강희_03	1664	12	·	김명열	황해도 관찰사	휴가	부모묘이장	유	긍정
1669_김명열_소지	강희_08	1669	03	·	김명열	황해도 관찰사	휴가	신병요양	유	부정

【표 5】 소지(所志) 기초 데이터

#### 2-2-5. 준호구(准戶口) : 인구 및 소유 노비에 대해 관에서 발급한 관문서

준호구(准戶口)는 현대에 기준할 경우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함께 갖는 문서라 할 수 있다. 호주(戶主)가 관청에 신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주었는데, 소송이나 직역(職役) 결정, 과거 응시나 추노(推奴)와 같이 호(戶)를 기준으로 한 인구 또는 소유 노비 정보가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되었다. 관청에서 발급하는 준호구는 호적대장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등급연도월일, 등급관청, 의거한 호적,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조, 솔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자료로 선정한 것은

1675년 부안현에서 김번 가족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발급한 문서이다. 그의 조부인 김홍원부터 자식인 김수종에 이르기까지의 인적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선대로부터 증여받은 노비와 스스로가 매매한 노비들에 대한 정보 또한 기록되어 있다. 아래는 대상 자료로 선정된 해당 준호구의 데이터를 정리한 표이다.

고문서	발급 연호	발급 연도	발급 월	발급 일	발급 대상	발급기관	근거 호적	대조 호적	가족 사항	노비 사항
1675_김번_준호구	강희_14	1675	05	·	김번	부안현 (扶安縣)	을묘년_호적	임자년_호적	생략	생략

【표 6】 준호구(准戶口) 기초 데이터

### 2-2-6. 관(關) : 관청끼리 주고받는 관문서

관(關)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으로 보내거나 또는 동등한 위상의 관청 상호 간에 주고 받은 관문서(官文書)를 지칭한다. 두 관청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함께 연관된 일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절차나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대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관청의 성격이 다양하고 또한 개별 관청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관의 내용 맥락 또한 여러 가지이다. 지방 현령과 현령 간의 업무처리 협조를 위한 내용도 있으며, 특정 인물의 관직 이임 및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호조와 이조가 주고받은 내용도 있으며, 상급기관에서 특정 인물의 관직 임명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령장을 하급 기관에 전달하도록 부탁하는 내용도 있으며, 중앙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항을 집행하기를 요구하는 내용 또한 있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가 관이며, 본 연구에서 대상 자료로 선정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해유이관(解由移關)이다.

‘해유(解由)’는 관직을 교체할 때 전임관원이 후임관원에게 업무 내용 및 물품을 인계하고 관직에 있을 시 처리했던 회계와 사무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가리킨다. 해유는 재정(財政)이나 군기(軍器) 항목과 직결되므로 기본적으로 호조와 병조의 소관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임관원이 해유를 받지 못할 경우 승진이나 녹봉에서 제약을 받았다. ‘해유이관’은 해유의 절차 가운데서도 전임관원이 후임관원에게 해유를 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 전임관원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원이 제출하는 해유첩정(解由牒呈)을 그 도의 관찰사가 첨부하여 호조나 병조에 제출한 문서, 호조나 병조에서 관찰사의 이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문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칭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 자료로 선정한 해유이관은, 1670년 평산도호부사를 지냈던 김명열의 이임 및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황해도 관찰사가 호조에 올리고 이를 검토한 호조가 이조에 보낸 문서이다. 관청끼리 주고받은 해유이관의 중요한 정보는, 발급연도월일, 해유관직, 대상자, 조사관청, 조출관청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는 대상 자료로 선정된 해당 해유이관의 데이터를 정리한 표이다.



고문서	해유 연호	해유 연도	해유월	전달일	해유관직	대상자	조사 관청	조출 관청
1670_김명열_관	강희_09	1670	06	05	평산도호부사	김명열	호조	이조

【표 7】 관(關) 기초 데이터

### 2-2-7. 입안(立案) : 관에서 발급하는 공증문서

입안(立案)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소지와 같은 형식으로 민중이 청원할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하던 공증 문서를 가리킨다. 청원이나 진정하는 내용에 따라 그 맥락은 조금씩 다르나 대표적 유형을 볼 경우 주로 토지나 노비의 매매 또는 양도 그리고 결송(決訟)이나 입후(立後) 등에 관한 사안을 공증의 형식으로 관청에서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하던 문서이다. 공증문서이기 때문에 입안의 경우 대체로 여타 관련 문서들과 함께 점련(粘連)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 대상 자료로 선정한 1675년 예조(禮曹)에서 김문(金璠)의 처에게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 또한 예조 계목, 김번의 소지, 김문의 처 이씨의 소지, 김번의 조목, 이씨의 함사, 김유열의 조목, 경국대전의 입후조 등 여러 유형의 문서들이 연계·점련되어 있음을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안이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발급연도월일, 발급대상, 발급기관, 입안성격, 보고자 성명, 보고자 직책, 보고월, 보고일, 점련 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는 대상 자료로 선정된 입안의 데이터를 정리한 표이다.

고문서	발급 연호	발급 연도	발급 월	발급 일	발급 대상	발급 기관	입안 성격	보고자 _명	보고자_ 직책	보고 월	보고 일	점련 여부
1675_김문_처_입안	강희_14	1675	01	.	김문_처	예조	계후 (繼後)	정중휘	우부승지	01	27	有

【표 8】 입안(立案) 기초 데이터

### 2-2-8. 분재기(分財記) : 가정에서 작성하는 상속문서

분재기(分財記)는 재산 상속 문서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작성하는 ‘분급문기’, 특정한 이유로 인해 일부 재산을 특정 인물에게 증여할 때 작성하는 ‘별급문기’, 부모가 죽은 다음 자식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부모의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하는 ‘화회문기’ 등이 모두 분재기 유형에 속한다. 이와 같은 재산 상속 문서는 ‘분재’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뿐 아니라, 그 사실의 공증을 관에 요청하는 문서, 분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부의 진술 요청서, 이에 응한 증인들의 진술서, 이러한 문서들을 종합하여 재산상속을 공증해 주는 관부의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 문서들이 있고, 이 문서들 또

한 문종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관을 맺고 있다.<sup>6</sup> 분재기가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분재연도월일, 증여자, 피증여자, 분재유형, 분재노비, 분재토지, 증인, 점련 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는 대상 자료로 선정된 입안의 데이터를 정리한 표이다.

고문서	분재연도	분재월	분재일	증여자	피증여자	분재유형	분재노비	분재토지	증인
1669_김명열_별급문서	1669	11	11	김명열	김번 김문	별급	사내종 名山 포함 30인	김명열이 별득한 愚礎 전답	김용열 김유열
1669_김명열 형제_분재기	1669	11	11	.	김명열 김용열 김유열	일반	3형제 각기 다수	없음	.
1672_김명열_별급문서	1672	1	7	김명열	김수중	별급	계집종 保令德 포함 8인	건선면 장작동 응장 논 8마지기	.
1678_김번 형제_화회문기	1678	7	1	김명열	김번 김문	화회	형제 각기 다수	愚礎 전답 절반 나눔	김증 김린 김공
1688_김번_분재문기	1688	3	7	김번	김수중 김수창 김수경 김수동 송하필 첩_윤 첩_주	분급	7인 각기 다수	7인 각기 다수	김공 김린 김증

【표 9】 분재기(分財記) 기초 데이터

### 2-3. 기초 온톨로지 설계 맥락 및 클래스 설정

12종의 다양한 고문서 유형에 내포된 정보를 단일한 체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온톨로지(Ontology)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온톨로지’란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대상 세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 체계이다.<sup>7</sup> 디지털 형식의 정보 처리를 위한 온톨로지는 일반적으로 온톨

6 김하영, 「문종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p.10

7 “온톨로지(ontology)는 철학에서 '존재론'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로서 '존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의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그러한 용어가 정보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과 컴퓨터가 정보화 대상(콘텐츠)을 이해하는 틀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틀은 바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응하는 개념들 또는 그 개념들 간의 연관 관계이다. 다시 말해, 정보 기술 용어로서의 온톨로지는 '정보화 대상이 되는 분야의 기본 개념과 그 개념들 간의 상관 관계를 정리한 명세서'를 의미한다.” -김현, 「한국 고전적 전산화의 발전 방향 -고전 문집 지식 정보 시스템 개발

로지 기술 언어(Ontology Language)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현재 통용되는 온톨로지 기술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국제적 표준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World Wide Web Consortium(W3C)이 권장하는 Web Ontology Language(OWL)이다. 본 연구에서 시맨틱 웹 개념을 적용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조선시대 문중 고문서 온톨로지'는 기본적으로 Web Ontology Language(OWL)에 근거하여 설계를 시도하였다.<sup>8</sup>

Web Ontology Language	의 미	일반적인 이름 (우리말 이름)
owl:Class	공동의 속성을 가진 개체들을 묶는 범주 A group of individuals that belong together because they share some properties.	Class 클래스
owl:NamedIndividual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 Instances of classes.	Individual 개체
owl:ObjectProperty	같거나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의 관계 Relations between pairs of individuals.	Relation 관계
owl:DataProperty	개체가 속성으로 갖는 데이터 값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data values.	Attribute 속성
rdfs:domain	특정 ObjectProperty 또는 Dataproperty가 적용될 수 있는 클래스를 한정 A domain of a property limits the individuals to which the property can be applied.	Domain 영역
rdfs:range	특정 ObjectProperty 또는 DatatypeProperty가 Data 값으로 삼을 수 있는 클래스를 한정 The range of a property limits the individuals that the property may have as its value.	Range 범위

【표 10】 온톨로지 구성 요소<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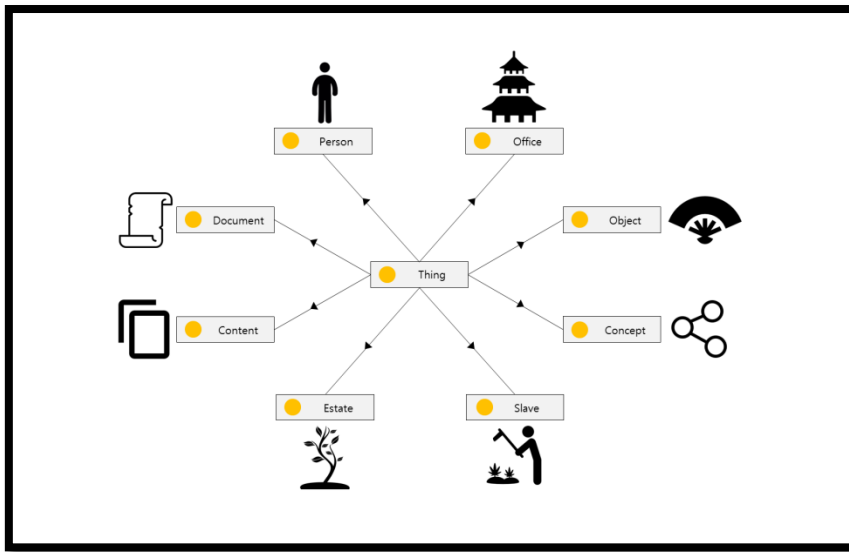
앞서 데이터를 추출한 12종의 부안 김씨 문중 고문서 및 그것들 사이의 상호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문중 고문서의 세계를 전자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온톨로지의 기본 골격을 다음

전략-], 『민족문화』제28호, 민족문화추진회, 2005. p.168~169

8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 온톨로지 서술을 위해 사용하는 '클래스(Class)', 'Individual(개체)', '관계(Relation)', '속성(Attribute)', '영역(Domain)', '범위(Range)' 등의 용어는 OWL의 owl:Class, owl:NamedIndividual, owl:ObjectProperty, owl:DataProperty, rdfs:domain, rdfs:range에 상응하는 용어이다. (※ 참고: '한국학 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온톨로지 설계 가이드 라인, [http://digerati.aks.ac.kr:82/index.php?title=온톨로지\\_설계\\_가이드\\_라인](http://digerati.aks.ac.kr:82/index.php?title=온톨로지_설계_가이드_라인))

9 OWL Web Ontology Language Overview, W3C Recommendation, (<http://www.w3.org/TR/owl-features/>)

과 같은 형태로 구상해보았다.



【그림 1】 문중 고문서 세계 Class 다이어그램

‘문서’(Document) 클래스는 아카이빙(기록물 관리)의 대상이 되는 문서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한 틀이다. 고신의 경우 ‘관직 임명’과 관련된 문서, 흥패·백패의 경우 ‘과거 합격’과 관련된 문서, 유지의 경우 ‘왕의 명령’과 관련된 문서, 소지의 경우 ‘관청에 대한 청원’과 관련된 문서, 준호구의 경우 ‘인적사항 증명’과 관련된 문서, 분재기의 경우 ‘재산 분배’와 관련된 문서, 토지매매명문의 경우 ‘토지 매매’와 관련된 문서 등. 이와 같이 다양한 문서 유형에 따라 하위 클래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Content) 클래스는 문서에 담긴 직접적 내용 즉, 생활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한 틀이다. ‘문서’(Document) 클래스가 아카이빙(기록물 관리)의 대상이 되는 문서 그 자체의 형식적 정보에 주목한 틀이라면, ‘내용’(Content) 클래스는 오히려 문서에 내포된 내용을 잘 정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예컨대 고신과 소지 그리고 관을 연계할 경우 ‘관직 임명과 휴가신청 및 해임 절차’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준호구와 분재기를 연계할 경우 ‘분재 행위와 분재된 노비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매매명문과 분재기를 연계할 경우 ‘거래와 분재 행위 및 거래된 토지와 분재된 토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서’(Document)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의 ‘내용’(Content)이 기술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여러 하위 클래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비’(Slave) 클래스는 노비 신분의 사람 하나하나를 개체로 갖는다. 분재기와 관련된 재산 분급이나 노비 매매 명문과 연계할 경우 ‘내용’(Content) 클래스의 부분(isPartOf)으로 그 관계어가 기술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노비가 대신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토지매매명문과 관련해서는 소유주를 대신하는 문서의 수발급자(issuedBy, issuedTo) 역할로 그 관계어가 정의될 수도 있다. 노비는 성별에 따라 ‘노(奴)’와 ‘비(婢)’

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므로 그에 기준하여 2개의 하위 클래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Estate) 클래스는 하나의 개체로 식별할 수 있는 부동산 성격의 대상을 정보화하기 위한 틀이다. 분재기나 토지매매명문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요소들이 그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토지’(Estate) 클래스의 개체는 상속이나 매매의 대상으로서 정보화가 가능한 것으로서 ‘내용’(Content) 클래스의 부분(isPartOf)으로 그 관계어가 기술될 수 있다. 대표적인 하위 클래스로 답(畓)이나 전(田) 그리고 실(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품’(Object) 클래스는 주로 물목단자에 실린 여러 형태의 물품이나 유지에서 발급대상으로 나타나는 물품들을 정보화하기 위한 틀이다. 이를 고려할 때 ‘물품’(Object) 클래스의 개체는 지급이나 증여의 대상으로서 정보화가 가능한 것으로서 ‘내용’(Content) 클래스의 부분(isPartOf)으로 그 관계어가 기술될 수 있다. 물품은 전달 맥락이나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념’(Concept) 클래스는 여러 유형의 고문서로부터 추출 가능한 정보 가운데 유의미한 맥락을 갖는 개념을 정보화하기 위한 틀이다. 고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대가(代加)’라든지 시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제(試題)’ 또는 특정 고문서 발급 맥락을 밝혀 줄 수 있는 ‘사건’과 관련된 요소들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특정한 ‘내용’(Content) 클래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내용 외부로부터 설정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하위 클래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물’(Person) 클래스는 고문서의 수발급자 및 고문서에 기록된 다양한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되는 인물들을 정보화하고, 해당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담아내기 위한 틀이다. 분석 대상이 문중 고문서임을 고려할 때 ‘인물’(Person) 클래스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한 가계(家系)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문의 족보로부터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족보로부터 추출 가능한 일반적인 노드는 문중의 남자 자손, 문중의 남자 자손의 부인, 며느리의 아버지와 그의 선대 및 방계 혈족, 문중의 여자 자손, 문중의 여자 자손의 남편, 사위의 아버지와 그의 선대 및 방계 남자, 딸과 사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그 직계 후손, 외손의 부인, 딸과 사위 사이에서 태어난 딸, 가계 상의 위치를 알 수 없으나 문서에 친척으로 기록된 인물, 문서 상의 친척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인물 또는 혈연과 관련이 없지만 문서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인물 등 대략 11개의 하위 클래스(Sub Class)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sup>10</sup>

‘관청’(Office) 클래스는 문서를 발급하거나 수급하는 주체로서의 행정기관을 정의하기 위한 틀이다. 여러 고문서와 관련된 관청을 그 속성에 따라 대표적 유형으로 나눌 경우 크게 ‘중앙 관청’과 ‘지방 관청’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관청의 하위 클래스를 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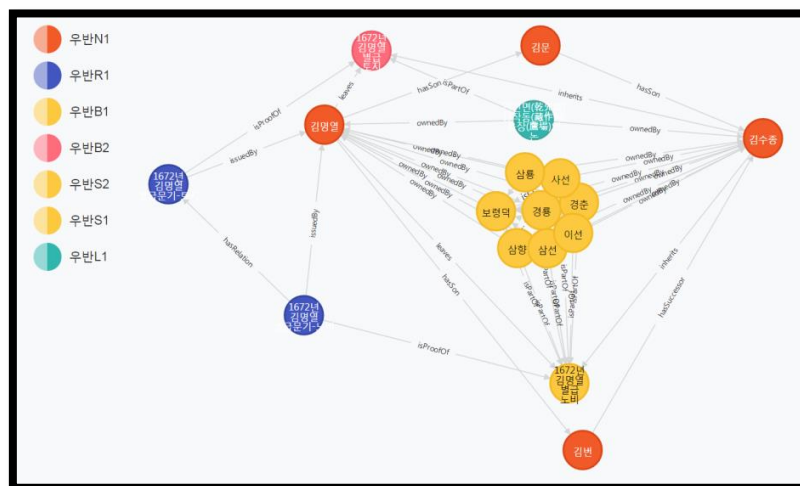
10 ‘인물’(Person) 클래스의 세부적 틀은 기존 문중 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서 참고할 수 있다. ‘김하영, 「문중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p.20~21’

계 두 가지로 설계할 수 있겠으나, 향후 고문서 간 관계로부터 관청 사이의 유의미한 변별점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그에 바탕을 둔 추가적 하위 클래스의 설정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8개의 기본적 클래스 설계를 확정하고 나서는 개별 클래스에 배속될 개체가 지닐 수 있는 일반적 속성과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기술될 수 있는 유의미한 관계어 양식을 기술해야 한다. 개체가 지닐 속성은 앞서 분석했던 개별 고문서의 특징적인 정보를 섬세하게 반영해야 하며, 관계어 서술은 각각의 클래스가 지닌 속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체 사이에 어떠한 핵심적인 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문중 고문서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연계할 수 있는 시맨틱 웹 DB가 구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양상과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삶에 대한 인식을 다채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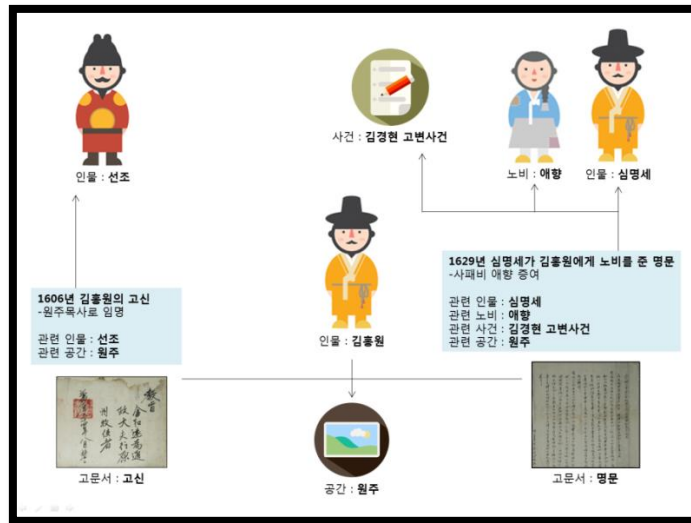
### 3. 고문서에 담긴 이야기와 시각화

본고는 문중 고문서 기초 데이터 분석과 그것을 토대로 한 온톨로지 설계에 있어서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간단한 정리만을 소개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문중 고문서 시맨틱 웹 DB 구축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연구에 해당하며 향후 이를 토대로 클래스의 속성 및 클래스 간 관계어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래는 그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DB에 반영될 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예시라 할 수 있다.



【그림 2】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Neo4j를 통해 구현한 '분재기'와 '토지매매명문' 시맨틱 웹 DB

그리고 이와 같은 문중 고문서 시맨틱 웹 DB가 구축될 시 그로부터 고문서 사이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정보와 지식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여러 고문서에 담긴 정보를 조화하여 특정 인물의 삶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한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3】 김홍원과 강원도 원주 사이에 얽힌 이야기의 조감도

### <참고문헌>

김하영, 「문중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김현, 「한국 고전적 전산화의 발전 방향 -고전 문집 지식 정보 시스템 개발 전략-」, 『민족문화』제28호, 민족문화추진회, 2005, 168~169쪽.

김현, 「고문헌 자료 XML 전자문서 편찬 기술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제29호, 한국고문서학회, 2006, 183~230쪽.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김현 외 14인, 『2015년 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논문 모음집 : 부안 우반동 김씨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제50호, 열상고전연구회, 2016, 13~38쪽.

김현 외 2인,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김현영, 「고문서 개념의 수용과 전근대 아카이브즈 자료의 정리」, 『사학연구』제95호, 한국사학회, 2009, 107~133쪽.

이희환, 「부안 김씨를 통해서 본 조선말기 相尙의 풍조」, 『역사학보』 제176호, 역사학회, 2002, 111~142쪽.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1.

전경목, 「분재기를 통해서 본 분재와 봉사 관행의 변천 : 부안김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22호, 한국고문서학회, 2003, 249~270쪽.

전경목, 「우반동 김씨 가문 내에서 서자의 역할과 활동」, 『장서각』 제3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98~229쪽.

최승희, 『한국 고문서 연구』, 지식산업사, 1989.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kostma.net/>)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온톨로지 설계 가이드 라인, ([http://digerati.aks.ac.kr:82/index.php?title=온톨로지\\_설계\\_가이드\\_라인](http://digerati.aks.ac.kr:82/index.php?title=온톨로지_설계_가이드_라인))

OWL Web Ontology Language Overview, W3C Recommendation, (<http://www.w3.org/TR/owl-features/>)